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발표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및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여야 “끝장보자”

■ 국감 후반전...양측 전면전 치달을듯

민주, “수사 외압 현 정권 책임...문제 심각”
새누리, “대선불복, 본심 드러낸 것” 반격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국감이 반환점을 돌 무렵 터져 나온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논란으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이 정점으로 치달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도 '대선 불복'이라며 대대적 반격에 나서는 양상이다.

◇민주당 = 국정원·국가보훈처·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수사 외압 문제'는 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23일 "부정선거가 현 정권의 문제로 드러난 것인 만큼 남은 열흘의 국감을 통해 현 정권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 국감 등을 통해 국정원 수사에 대한 축소·외압 의혹의 진상을 추궁하고 외압의 '윗선'을 파고들 방침이다.

특히 이날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직접 편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과 관련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문제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즉각 실천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 일부 민주당 중진에 이어 문재인 의원까지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고 언급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자 '대선 불복'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반격을 가했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대선 불복 의도를 부각함으로써 여론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끄는 동시에 이번 사건이 정권의 정통성 시비로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성급한 대선불복성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언동은 국익에 반하는 백해무익한 일이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관련 발언의 즉각적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훈처 대선개입 의혹 첫 제기 동양사태 당국 관리부실 따져

국감 인물
민주당 강기정 의원

을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논란이다.

이 같은 상황에 불을 댕긴 의원은 바로 정부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다. 강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14일 국가보훈처가 대선에 개입했는지 22만 명이 넘는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하면서 여당 편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들춰냈다.

강 의원은 "보훈처가 실시한 안보교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한편 진보진영을 중북세력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북한의 전위부대로 호도하는 등 노골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더 나아가 정부 조직 전체가 움직인 총체적인 관련선거의 증거를 확보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번 정부 위 국감은 '동양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관리부실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이 쟁점을 놓고도 강 의원은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1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동양증권을 검사했을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의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와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을 적시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를 묵살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관련 이슈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현 정부의 국부총리실과 시중은행의 인사에서의 호남 소외를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금융위원장에게 광주은행 지역 환원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시간당 321만원 받는 한국투자공 운영위원장” 이낙연 의원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장이 1시간 회의의 수당으로 321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을 들어 지난달까지 서명회의 1

차례를 포함해 7차례 열린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은 회의당 583만원, 위원들은 416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올해 열린 6차례 회의의 전체 소요시간은 655분으로,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위원장은 321만원, 위

원은 229만원 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남 수돗물 요금 전국에서 가장 비싸” 주승용 의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주승용(여수) 의원이 환경부 통해 확인한 '2011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의 수도 요금 평균 단가는 1t당 786.5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773원), 울산시(763.6원) 순 등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대전시(484.6원)였다. 전국 평균 요금은 619.3원이었다. 주 의원은 "수도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전남과 같이 취수

원이 부족해 요금이 과다한 지역은 국고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해외범죄 피해 매년 4000여건” 박주선 의원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입은 범죄 피해가 해마다 4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나 해외안전관리의 체계 구성 등 당국의 대책은 결고 있다고 지적이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따르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재외국민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는 무려 1만8698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절도에 의한 피해가 1만355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 1654건(8.8%), 사기 1296건(6.9%), 폭행상해 1181건(6.3%) 등이었다. 박 의

원은 "이 같은 실정에도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대책으로 추진했던 '해외안전관리의 체계'는 4년이 넘도록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민자역사 건립사업 10년 넘게 표류” 이윤석 의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이 추진 중인 창동역, 노량진역, 천안역, 성북역, 안산 중앙역 등 5개 민자역사 개발이 모두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들 역사는 사업주관사를 선정 한 지 9~1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인허가협의 단계(성북·안산중앙역)를 벗어나지 못했거나 아예 공사중단(창동역), 파산절차(노량진역), 협약무효(천안역)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노량진·창동·천안 등 3개

역사에 서만 코레일을 상대로 8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체계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한국마사회 직원 10명 중 9명 비정규직” 황주홍 의원

한국마사회에 근무하는 직원 10명 중 9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황주홍(강진·영암·장흥) 의원이 한국마사회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2·4분기 기준 한국마사회에는 859명의 정규직원과 197명의 무기계약직원, 75명의 기간제 비정규직, 6820명의 단시간 비정규

직원, 1366명의 소속 직원 등 모두 9317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다. 한국마사회는 단시간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 정규직 비율은 9.2%, 단시간 비정규직을 제외할 경우 정규직 비율은 34.4%다.

황주홍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직원 1명당 평균 연봉은 공기업 중 3위이며, 이익준비금은 2010년 기

준으로 1조 5000억원으로 자본금 1300억원의 11.5배에 도달해 있어 정규직 채용의 어려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와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 (보1억3천,월600만 포함)
* 도천동 신축상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세하동공장 대지1,499㎡,건평234㎡ 6억8천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5천),직영 월천만수입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상우지구 대지 405㎡(122평) 매 9억
* 나주 혁신도시인근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신창동 생산복지 전 1,980㎡ 매 6억5천
* 세하동 자연녹지 답 5,500㎡ 매 6억6천
* 완도군 악산면 토지 11,000㎡ 매 8억4천
* 장흥군 용산면 토지 101,851㎡ 매 6억(조정가)
* 해보면 2차선도로변 답 1,245㎡ 매9천5백만
기타
* 광산구 분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급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상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매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점 제 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1억9천만원 (급매 비싼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환상의 섬
단독(해남군소재)
평수 약 2000평
계획관리
차량진입, 가로등, 선착장, 방파제 설치됨
100%개발가능 (주택, 펜션, 기타 등) 주변 별장, 단독주택, 민가, 펜션있음
매가 평당 30만원
(협상가능)
◎주인 직매◎
010-9247-9240

공장매매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토 지: 4,864㎡
공 장: 375㎡
사무동: 161㎡
기계장치일체
용도 특수시멘트(몰탈등) 제조공장
매매가격 3억원
조선중인 장평2농공단지 (2014년 6월입주가능)
토지분양가 평당 222천원
연락처: 017-602-1948